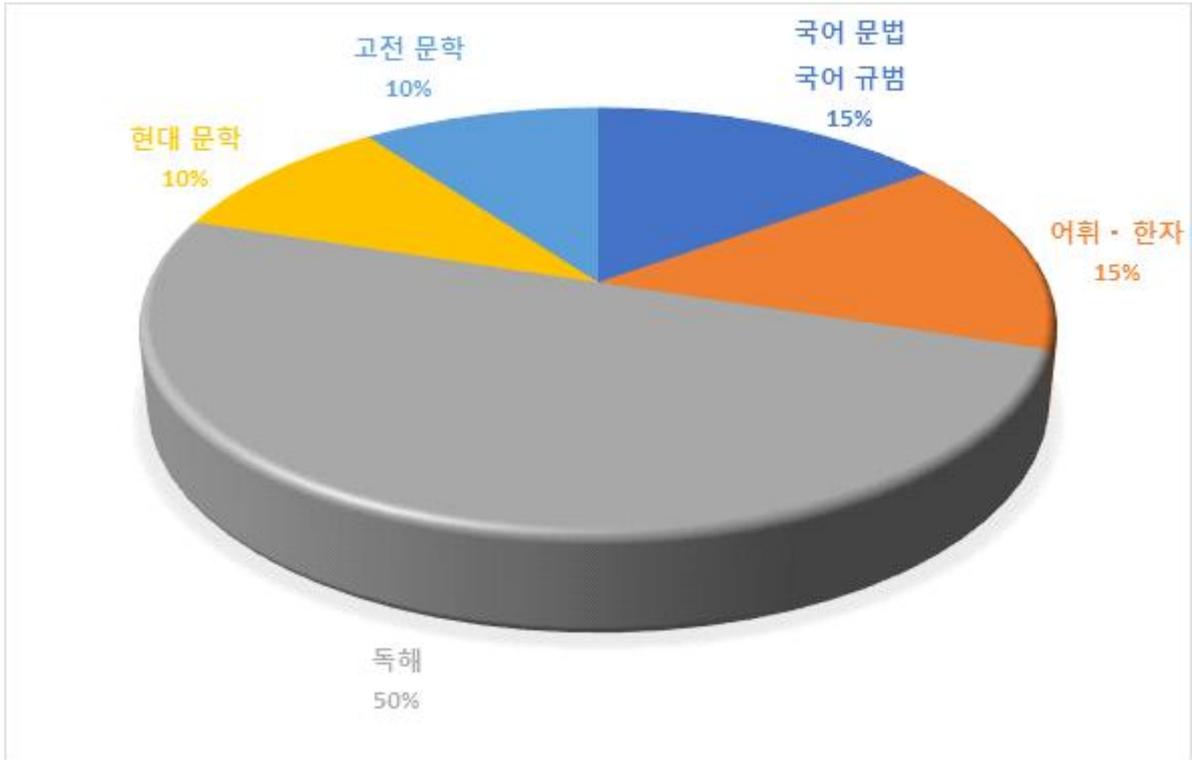


2022 지방직 9급: 2022. 6. 18. 시행

수험생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의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문제와 자세한 해설을 함께 올려 드립니다. 해설 강의는 6월 18일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이후 커넥츠 공단기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지식형 문항 (6)	국어 문법·국어 규범 (3)	높임 표현 (1): 언어 예절 의미론 + 국어의 역사 (1) 사동 표현과 피동 표현 (1): 사·피동의 오류
	어휘·한자 (3)	어휘 (1) 올바른 한자 표기 (1) 한자 성어 (1)
지문 분석형 문항 (14)	독해 (10)	내용 일치 (3) 내용 추론 (2) 중심 내용 파악하기 (1) 문장이나 단락 배열하기 (1) 전개 방식 파악하기 (1) 고쳐쓰기 (1) 화법 (1)
	현대 문학 (2)	현대 시 (1) 현대 소설 (1)
	고전 문학 (2)	고전 시가 (1) 고전 소설 (1)

★총평

지금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신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땀과 눈물이 반드시 합격의 기쁨으로 변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2022년도 지방직 시험은 작년도 시험과 매우 유사한 비율로 출제되었다. 작년에 12문항이나 출제된 독해는 올해에도 역시 10문항이 출제되었고, 문법은 작년과 동일하게 단 3문항만 출제되었다. 이렇듯 작년 시험과 전체적인 문항 비율은 매우 유사했으나, 각 문항의 특성을 살펴보면 큰 차이점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독해는 올해 지방직 역시 가장 많은 문항이 출제되었다. 그런데 사실적 이해 위주로 출제되었던 올해 국가직과는 달리, 지방직 시험은 추론 문제가 크게 강화된 모습을 보인다. 특히 19번과 20번은 논증 구조를 활용하여 내용을 추론하는 문제였는데, 평소에 다양한 문제나 난도가 조금 높은 문항을 연습하지 않은 학생들은 당황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둘째, 문법과 어휘는 작년과 동일하게 각각 3문항이 출제되었다 문법은 주요 규범이 출제되지 않고 다소 지엽적인 영역, 언어 예절이나 의미의 변화 등에서 출제되었다. 또한 어휘는 학생들이 생소하게 느낄 한자어들이 나왔고, 한자 성어 역시 작년과 다르게 독음을 주지 않았다. 이로 인해 문항의 수는 작년과 비슷했지만 작년보다 학생들이 문법과 어휘에서 다소 어려움을 느꼈을 것이라 본다.

셋째, 문학 영역 중 소설은 독해 능력을 기반으로 한 수능형 문제들이 출제되었다. 시 문제는 그동안 기출이 되지 않았던 작품이 두 문항이나 출제되어, 작품 분석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었다.

앞으로 치러질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야 하는 것은 다음의 사항이다.

첫째, 독해 훈련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4년 전부터 4쪽짜리 시험이 대세가 되었다. 이는 독해 문제가 강화되었다는 의미이다. 수업 시간마다 문법 실력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결국 성패는 독해가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앞으로의 시험에서도 독해는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선재국어 수험생들에게 제공되는 독해 훈련, 《독해야 산다: 점수를 바꾸는 15분》에 열정적으로 참여할 것을 다시 한번 권하고 싶다.

둘째, 자신이 ‘독강형’과 ‘독약형’ 중 어떤 유형인지를 파악해서 학습 계획을 세워야 한다. 독해력을 갖춘 ‘독강형’ 학생들은 문법과 어휘를 빠르게 훑는 단기 코스를 통해 국어를 압축적으로 정리한 뒤, 문제 풀이를 통해 감을 유지하며 고득점을 획득하는 전략이 적합하다. 이에 반해 독해력이 약한 ‘독약형’ 학생들은 기본적인 이론 정리와 함께 독해력을 탄탄하게 다져야 고득점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하고, 꾸준히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힘써야 한다. 선재 국어가 갖추고 있는 문제 풀이 시스템과 독해 훈련 시스템을 충실히 이행하여, 독해력을 기반으로 한 국어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합격을 앞당기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셋째, 현재의 시험은 문법 비중이 줄어들고 독해 등이 강화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문법 등의 지식형 문제의 비중이 작아졌다고 해도 이를 소홀히 하다가는 고득점을 받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따라서 문법 등의 지식형 문제는 압축적으로 정리한 뒤, 꾸준히 전 영역의 다양한 문제를 풀면서 국어의 감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론을 압축적으로 정리한 뒤, 《매일 국어》를 꾸준히 풀 것을 권한다. 이번 시험에서 입증되었듯이, 시험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기출을 기반으로 출제하되, 그동안 잘 안 나오던 문제도 갑자기 나올 수 있고, 신유형 독해 문제도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변화된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압축 정리와 풍부한 문제풀이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매일 국어》는 변화된 국어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최적의 훈련 프로그램이다. 최고로 효율적인 방법으로 고득점을 얻을 수 있도록, 꾸준히 참여하기를 권한다.

1. 언어 예절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지금부터 회장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 ② (시누이에게) 고모, 오늘 참 예쁘게 차려 입으셨네요?
- ③ (처음 자신을 소개하면서) 처음 뵙겠습니다. 박혜정입니다.
- ④ (다른 사람에게 자기 아내를 가리키며) 이쪽은 제 부인입니다.

정답: ③

해설: 처음 자신을 소개하면서 ‘처음 뵙겠습니다. ○○○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언어 예절이다.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자신을 상대방에게 소개하는 말은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입니다’가 표준이다.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에도 ‘처음 뵙겠습니다(안녕하십니까?). ○○○입니다’라고 할 수 있다(국립국어원, 《표준 언어 예절》).

오답 풀이: ① 계시겠습니다(×) → 있으시겠습니다(○): ‘말씀’은 회장님과 연관된 대상이므로 간접 높임을 써서 ‘있으시겠습니다’로 고쳐야 한다. 간접 높임은 높여야 할 주체의 신체 부분, 성품, 심리, 소유물과 같이 주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을 높여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표현이다. ‘있다, 없다’는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의 형태가 다르다. 직접 높임은 ‘계시다, 안 계시다’를, 간접 높임은 ‘있으시다, 없으시다’를 쓴다.

② 고모(×) → 형님(○)/아가씨(아기씨)(○): ‘시누이’는 남편의 누나나 여동생을 말한다. 남편의 누나는 ‘형님’, 누이동생은 ‘아가씨, 아기씨’로 부른다. 전통적인 직접 호칭어가 있을 경우 ‘고모’와 같은 간접 호칭어를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국립국어원에서는 자녀와의 관계에 기대어 ‘○○[자녀 이름] 고모’로 부를 수도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참고한다.

Tip 시험에는 ‘차려▽입으셨네요’로 출제되었지만 ‘차려입다’는 ‘잘 갖추어 입다’라는 뜻의 한 단어로 사전에 등재되어 있으므로 ‘차려입으셨네요?’와 같이 붙여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④ 부인입니다(×) → 아내(집사람, 안사람, 처)입니다(○): ‘부인’은 남의 아내를 높여 이르는 말이므로 자신의 아내를 가리키는 말로 적절하지 않다. 자신의 아내를 가리킬 때는 ‘아내, 집사람, 안사람, 처’ 등으로 나타내는 것이 좋다.

2. 다음 글의 주된 서술 방식은?

이지러는 졌으나 보름을 가제 지난 달은 부드러운 빛을 흐뭇이 흘리고 있다. 대화까지는 칠십 리의 밤길, 고개를 두이나 넘고 개울을 하나 건너고, 별판과 산길을 걸어야 된다. 길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 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 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 ① 묘사
- ② 설명
- ③ 유추
- ④ 분석

정답: ①

해설: 제시문의 서술 방식을 묻는 문제이다.

제시문은 장들뱅이의 삶의 애환과 인간 본연의 애정을 낭만적이고 서정적인 분위기로 그려 낸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이다. 제시문에서는 달밤에 대화까지 가는 길의 모습을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그림을 그리듯이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으므로 ‘묘사’의 서술 방식이 사용되었다.

3.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연출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가 유효한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즉 저작권 보호 가능성이 있는 창작물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창작적인 표현을 도용당했는지 밝혀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다. 왜냐하면 연출자가 주관적으로 창작성이 있다고 느끼는 부분일지라도 객관적인 시각에서는 이미 공연 예술 무대에서 흔히 사용되는 표현 기법일 수 있고,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아닌 아이디어의 요소와 보호 가능한 요소인 표현이 얽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쉬운 예로 셰익스피어를 보자. 그의 명작 중에 선대에 있었던 작

품에 의거하지 않고 탄생한 작품이 있는가. 대부분의 연출자는 선행 예술가로부터 영향을 받아 창작에 임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고 자연스럽다. 따라서 무대 연출 작업 중에서 독보적인 창작을 걸러 내서 배타적인 권한인 저작권을 부여하는 것은 매우 흔치 않은 경우이고, 후발 창작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저작권법은 창작자에게 개인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창작을 장려함과 동시에 일반 공중이 저작물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두 가지 가치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목표다.

- ① 무대 연출의 창작적인 표현의 도용 여부를 밝히기는 쉽지 않다.
- ② 저작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려면 유효한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 ③ 독보적인 무대 연출 작업에 저작권을 부여한다고 해서 후발 창작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 ④ 저작권법의 목표는 창작자의 창작을 장려하고 일반 공중의 저작물 이용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다.

정답: ③

해설: 제시문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찾는 문제이다.

‘무대 연출 작업 중에서 독보적인 창작을 걸러내서 ~ 후발 창작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와 일치하지 않는 진술이다.

오답 풀이: ① ‘창작적인 표현을 도용당했는지 ~ 이것이 쉽지 않다’와 일치한다.

② 연출자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으로 ‘유효한 저작권의 소유’를 제시하고 있다.

④ ‘저작권법은 창작자에게 ~ 창작을 장려함과 동시에 일반 공중이 저작물을 원활하게 이용’에서 저작권법의 두 가지 목표를 설명하고 있다.

4. ㉠~㉣의 고쳐 쓰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파놉티콘(panopticon)은 원형 평면의 중심에 감시탑을 설치해 놓고, 주변으로 빙 둘러서 죄수들의 방이 배치된 감시 시스템이다. 감시탑의 내부는 어둡게 되어 있는 반면 죄수들의 방은 밝아 교도관은 죄수를 볼 수 있지만, 죄수는 교도관을 바라볼 수 없다. 죄수가 잘못했을 때 교도관은 잘 보이는 곳에서 처벌을 가한다. 그렇게 수차례의 처벌이 있게 되면 죄수들은 실제로 교도관이 자리에 ㉠ 있을 때조차도 언제 처벌을 받을지 모르는 공포감에 의해서 스스로를 감시하게 된다. 이렇게 권력자에 의한 정보 독점 아래 ㉡ 다수가 통제된다는 점에서 파놉티콘의 디자인은 과거 사회 구조와 본질적으로 같았다.

현대 사회는 다수가 소수의 권력자를 동시에 감시할 수 있는 시놉티콘(synopticon)의 시대가 되었다. 시놉티콘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인터넷의 ㉢ 동시성이다. 권력자에 대한 비판을 신변 노출 없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정보화 시대가 오면서 언론과 통신이 발달했고, ㉣ 특정인이 정보를 수용하고 생산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비판적 인식 교류와 부정적 현실 고발 등 네티즌의 활동으로 권력자들을 감시하는 전환이 일어났다.

- ① ㉠을 ‘없을’로 고친다.
- ② ㉡을 ‘소수’로 고친다.
- ③ ㉢을 ‘익명성’로 고친다.
- ④ ㉣을 ‘누구나가’로 고친다.

정답: ②

해설: 올바른 문단 쓰기 문제이다.

2문단에서 파놉티콘의 디자인을 ‘권력자에 의한 정보 독점 아래 ㉡ 다수가 통제’되는 원리로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권력자’는 소수의 교도관을, ‘다수’는 죄수들을 의미한다. 따라서 ㉡을 ‘소수’로 고친다는 의견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파놉티콘은, 교도관은 죄수들을 바라볼 수 있지만 죄수들은 교도관을 바라볼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감시탑 안에 교도관이 실제로 없어도 죄수들은 그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교도관에게 언제 처벌받을지 모르는 공포감 때문에 스스로를 감시하게 된다. 따라서 ㉠‘있을’을 ‘없을’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③ 2문단의 ‘권력자에 대한 비판을 신변 노출 없이 자유롭게 표현’은 바로 앞 문장에 대한 내용과 관련된다. 따라서

- ㉠ ‘동시성’은 ‘익명성’으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 * 익명성(匿名性): 어떤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는 특성
- ④ 현대의 정보화 사회를 다수가 소수의 권력자를 동시에 감시할 수 있는 시놉티콘의 시대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 ㉠ ‘특정인’을 ‘누구나’로 고쳐, 정보화 시대에는 언론과 통신이 발달하면서 누구나가 정보를 수용하고 생산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이루는 것이 적절하다.

5.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산(山)새도 오리나무
위에서 운다
산새는 왜 우노, 시메산골
영(嶺) 넘어가려고 그래서 울지

눈은 내리네, 와서 덮이네
오늘도 하룻길은

㉡ 칠팔십 리(七八十里)
돌아서서 육십 리는 가기도 했소

㉢ 불귀(不歸), 불귀, 다시 불귀
삼수갑산에 다시 불귀
사나이 속이라 잊으련만
십오 년 정분을 못 잊겠네

산에는 오는 눈, 들에는 녹는 눈
산새도 오리나무

㉣ 위에서 운다
삼수갑산 가는 길은 고개의 길

- 김소월, <산>

- ① ㉠은 시적 화자와 상반되는 처지에 놓여 있다.
- ② ㉡은 시적 화자에게 놓인 방랑길을 비유한다.
- ③ ㉢은 시적 화자의 이국 지향 의식을 강조한다.
- ④ ㉣은 시적 화자가 지닌 분노의 정서를 대변한다.

정답: ②

해설: 김소월의 <산>은 감정 이입을 통해 ‘삼수갑산’에 돌아가지 못하는 화자의 비애를 노래한 시이다.

㉡ ‘칠팔십 리’는 ‘삼수갑산’에 돌아가지 못한 채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화자의 유랑의 길을 비유한 표현이다.

오답 풀이: ① ㉠ ‘산새’는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으로, ‘시메산골’에 가기 위한 ‘영(고개)’을 넘지 못해 울고 있다.

따라서 ㉠은 ‘삼수갑산’에 돌아가지 못해 슬퍼하는 화자와 유사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다.

③ ㉢ ‘불귀, 불귀, 다시 불귀’는 ‘삼수갑산’에 다시 돌아가지 못함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십오 년 정분이 있었던 ‘삼수갑산’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낸다. 따라서 ‘이국(인정, 풍속 따위가 전혀 다른 남의 나라) 지향 의식’을 강조한 표현이 아니다.

④ ㉣ ‘위에서 운다’는 감정 이입의 대상인 ‘산새’의 슬픔을 드러낸 표현이므로 ㉣은 ‘삼수갑산’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화자의 슬픈 정서를 대변한다.

6. 다음 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같이 가지지. 내 보기엔 좋은 여자 같군.”
 “그런 거 같아요.”
 “또 알우? 인연이 닿아서 말뚝 박구 살게 될지. 이런 때 아주 뜨내기 신셀 청산해야지.”
 영달이는 시무룩해져서 역사 밖을 멍하니 내다보았다. 백화는 뭔가 쭈군대고 있는 두 사내를 불안한 듯이 지켜보고 있었다. 영달이가 말했다.
 “어디 능력이 있어야죠.”
 “삼포엘 같이 가실라우?”
 “어쨌든…….”
 영달이가 뒷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오백 원짜리 두 장을 꺼냈다.
 “저 여잘 보냅시다.”
 영달이는 표를 사고 삼립빵 두 개와 찢 달걀을 샀다. 백화에게 그는 말했다.
 “우리 뒤차를 탈 텐데……. 잘 가슈.”
 영달이가 내민 것들을 받아 찢 백화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그 여자는 더듬거리며 물었다.
 “아무도…… 안 가나요?”
 “우리 삼포루 갑니다. 거긴 내 고향이오.”
 영달이 대신 정 씨가 말했다. 사람들이 개찰구로 나가고 있었다. 백화가 보통이를 들고 일어섰다.
 “정말, 잊어버리지……. 앓을게요.”
 백화는 개찰구로 가다가 다시 돌아왔다. 돌아온 백화는 눈이 젖은 채로 웃고 있었다.
 “내 이름 백화가 아니에요. 본명은요…… 이점례예요.”
 여자는 개찰구로 뛰어나갔다. 잠시 후에 기차가 떠났다.

- 황석영, <삼포 가는 길>

- ① 정 씨는 영달이 백화와 함께 떠날 것을 권유했군.
- ② 백화는 영달의 선택이 어떤 것일지 몰라 불안했군.
- ③ 영달은 백화를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같이 떠나지 않았군.
- ④ 백화가 자신의 본명을 말한 것은 정 씨와 영달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이었군.

정답: ③

해설: 황석영의 <삼포 가는 길>은 산업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던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하여 소외된 계층의 아픔과 고향 상실의 문제를 형상화한 소설이다.

정 씨가 ‘내 보기엔 좋은 여자 같군’이라고 ‘백화’를 평가하자, 영달은 “그런 것 같아요”라고 이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달이 백화를 신뢰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① “같이 가지지. 내 보기엔 좋은 여자 같군”, “또 알우? ~ 신셀 청산해야지”에서 정 씨는 영달에게 백화와 함께 떠날 것을 권유하고 있다.
- ② “백화는 뭔가 쭈군대고 있는 두 사내를 불안한 듯이 지켜보고 있었다”에서 알 수 있다. 즉 백화는 자신과 함께 갈 것인지를 논하고 있는 두 사람(정 씨, 영달)을 바라보며 영달의 선택이 어떤 것인지 몰라 불안해하고 있다.
- ④ 백화는 “정말, 잊어버리지……. 앓을게요”라고 말한 후 정 씨와 영달에게 자신의 본명을 말하고 있다. 이는 백화가 자신을 도와준 정 씨와 영달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 자신의 본명을 말한 것이다.

7. 다음 글의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가) 과거에는 고통만을 안겨 주었던 지정학적 조건이 이제는 희망의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반도는 사람과 물자가 모여드는 동북아 물류와 금융, 비즈니스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도해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합니다.

아니라 B이다.

9.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올해 A시는 ‘청소년 의회 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발표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지방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민주 시민으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청소년 의회 교실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A시에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다. 이 조례에 따르면 시의회 의장은 의회 교실의 참가자 선정 및 운영 방안을 결정할 수 있다. 운영 방안에는 지방 자치 및 의회의 기능과 역할, 민주 시민의 소양과 자질 등에 관한 교육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시의회 의장은 고유 권한으로 본회의장 시설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최근 A시는 ‘수업 시간 스마트폰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주제로 본회의장에서 첫 번째 의회 교실을 운영하였다. 참석 학생들은 1일 시의원이 되어 의원 선서를 한 후 주제에 관한 자유 발언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관련 조례안을 상정한 후 찬반 토론을 거쳐 전자 투표로 표결 처리하였다. 학생들이 의회 과정 전반에 대해 체험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

- ① A시에 있는 학교의 만 19세 미만 재학생은 청소년 의회 교실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다.
- ② A시의 시의회 의장은 청소년 의회 교실의 민주 시민 소양과 관련된 교육 내용을 정할 수 있다.
- ③ A시에서 시행된 청소년 의회 교실에서 시의회 의장은 본회의장 시설을 사용하도록 지원해 주었다.
- ④ A시의 올해 청소년 의회 교실은 의원 선서, 조례안 상정, 자유 발언, 찬반 토론, 전자 투표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정답: ④

해설: 제시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이다.

최근 A시에서 ‘수업 시간 스마트폰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주제로 청소년 의회 교실을 운영하였는데, ‘의원 선서를 한 후 주제에 관한 자유 발언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관련 조례안을 상정한 후 찬반 토론을 거쳐 전자 투표로 표결 처리’하였다. 즉 의원 선서 - 자유 발언 - 조례안 상정 - 찬반 토론 - 전자 투표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므로 ④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청소년 의회 교실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A시에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다”에서 알 수 있다.
- ② “시의회 의장은 의회 교실 참가자 선정 및 운영 방안을 결정할 수 있다. 운영 방안에는 ~ 민주 시민의 소양과 자질 등에 관한 교육 내용이 포함된다”에서 알 수 있다.
- ③ “시의회 의장은 고유 권한으로 본회의장 시설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최근 A시는 ~ 본회의장에서 첫 번째 의회 교실을 운영하였다”에서 알 수 있다.

10. 단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난: 한자어 ‘간난’에서 ‘ㄴ’이 탈락하면서 된 말이다.
- ② 어리다: ‘어리석다’는 뜻에서 ‘나이가 적다’는 뜻으로 바뀐 말이다.
- ③ 수탉: ‘ㅎ’을 종성으로 갖고 있던 ‘술’에 ‘ㄷ’이 합쳐져 이루어진 말이다.
- ④ 점잖다: ‘의젓함’을 나타내는 ‘점잖이’에 ‘하다’가 붙어 형성된 말이다.

정답: ④

해설: ‘점잖다’는 ‘어리다, 젊다’의 의미인 ‘점다’에 ‘-디(지) 아니하다’가 결합한 ‘점디 아니하다’가 축약되어 오늘날 ‘점잖다’의 형태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의젓함’을 나타내는 ‘점잖이’에 ‘하다’가 붙어 형성된 말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난’은 한자어 ‘간난(艱難: 어려울 간, 어려울 난)’에서 온 것으로, ‘간난’의 제1음절의 끝소리 ‘ㄴ’이 탈락한 형태이다. 일반적으로 같은 음의 중복을 꺼려 한 낱말 안의 같거나 비슷한 음운을 다른 음운으로 바꾸는 현상으로 본다.

- ② 현대 국어 ‘어리다’는 15세기 중세 국어에서는 ‘어리석다’를 뜻하였는데 오늘날에는 ‘나이가 적다’의 뜻으로 의미가 이동한 단어이다.
- ③ 현대 국어 ‘수탉’의 옛말인 ‘수툼’은 ‘수컷’을 의미하는 ‘수’의 옛말인 ㅎ 종성 체언 ‘술’에 ‘닭’의 옛말인 ‘툼’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복합어이다. 근대 국어 후기에 모음 ‘ㆍ’가 ‘ㅏ’와 소리가 같아짐에 따라 19세기에는 ‘수툼’ 형태가 등장하여 오늘날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11.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예전에 ‘혐오’는 대중에게 관심을 끄는 말이 아니었지만, 요즘에는 익숙하게 듣는 말이 되었다. 이는 과거에 혐오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다. 단지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문제가 폭발하듯 가시화되었다는 뜻이다. 혐오 현상은 외계에서 뚝 떨어진 괴물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거기엔 자체의 역사와 사회적 배경이 반드시 선행한다.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주의 사항이 있다. 혐오나 증오라는 특정 감정에 집착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혐오가 주제인데 거기에 집중하지 말라니, 얼핏 이율배반처럼 들리지만 이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왜 혐오가 나쁘냐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답한다. “나쁜 감정이니깐 나쁘다.”, “약자와 소수자를 차별하게 만드니까 나쁘다.” 이 대답들은 분명 선량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문제의 성격을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 혐오나 증오라는 감정에 집중할수록 우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바라보는’ 잘못을 범하기 쉬워진다.

인과관계를 혼동하면 곤란하다. 우리가 문제시하고 있는 각종 혐오는 자연 발생한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형성된 감정이다. 사회문제의 기원이나 원인이 아니라, 발현이며 결과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혐오는 증상이다. 증상을 관찰하는 일은 중요하지만 거기에만 매몰되면 곤란하다. 우리는 혐오나 증오 그 자체를 사회악으로 지목해 도덕적으로 지탄하는 데서 그치지 말아야 한다.

- ① 혐오 현상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 ② 혐오 현상은 선량한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 ③ 혐오 현상을 만들어 내는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한다.
- ④ 혐오라는 감정에 집중할수록 사회 문제는 잘 보인다.

정답: ③

해설: 글의 주제를 찾는 문제이다.

1문단에서 최근에 혐오 현상이 폭발했지만 이것에는 역사적, 사회적 배경이 존재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2문단에서는 혐오라는 감정에 집착하여 혐오 현상을 바라보면 문제의 성격을 오인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마지막 문단에서는 혐오는 사회적으로 형성된 감정이며, 혐오를 도덕적으로 지탄하는 데에서 그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글쓴이는 혐오 현상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그 원인이 되는 사회 문제를 찾아내야 한다는 입장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혐오 현상을 만들어 내는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한다’가 주제로 가장 적절하다.

- 오답 풀이: ①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혐오는 자연 발생한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형성된 감정이다. 즉 사회적 문제가 원인이 되어 혐오 현상이라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 ② 2문단의 “왜 혐오가 나쁘냐는 물음에 ~ 이 대답들은 분명 선량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에 혐오라는 감정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의 선량한 의도를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글쓴이는 선량한 마음만으로는 ‘혐오 현상’의 본질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므로 주제로 적절하지 않다.
- ④ 2문단에 따르면 혐오나 증오라는 감정에 집중할수록 우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바라보는’ 잘못을 범하기 쉬워진다. 즉 혐오라는 감정(손가락)에 집중할수록 그 원인이 되는 사회문제(달)를 잘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1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有此茅亭好	이 멋진 ㉠ 초가 정자 있고
綠林細逕通	수풀 사이로 오솔길 나 있네

微吟一杯後	술 한 잔 하고 시를 읊조리면서
高座百花中	온갖 꽃 속에서 ㉠ 높달랠게 앉아 있네
丘壑長看	산과 계곡은 언제 봐도 그대로건만
樓臺盡覺空	㉡ 누대는 하나같이 비어 있구나
莫吹紅一點	붉은 꽃잎 하나라도 흔들지 마라
老去惜春風	늙어갈수록 ㉢ 봄바람이 안타깝구나

- 심환지, <육각지하화원소정염운>

- ① ㉠: 시간적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를 매개하고 있다.
- ② ㉠: 시적 화자의 초연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 자연에 대비되는 쇠락한 인간사를 암시하고 있다.
- ④ ㉢: 꽃잎을 흔드는 부정적 이미지로 기능하고 있다.

정답: ①

해설: 심환지의 <육각지하화원소정염운>은 봄을 맞아 만개한 봄꽃을 즐기며 가는 세월을 아쉬워하는 마음을 읊은 한시이다.

1~4행에서 화자는 ㉠ ‘초가 정자’가 있고, 오솔길이 나 있는 수풀이 보이는 곳에서 온갖 꽃 속에 앉아 술 한 잔을 하며 시를 읊조리고 있다. 5~8행에서 화자는 주위 풍경을 바라보며 쇠락하는 인간사에 대한 안타까운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즉 ㉠ ‘초가 정자’는 화자의 시선에 보이는 대상물일 뿐 시간적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를 매개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② ‘온갖 꽃 속에서 ㉠ 높달랠게 앉아 있네’에서 화자는 온갖 봄꽃들이 자신의 발아래 핀 풍경 속에 앉아 있다. 여기서 ‘높달랠게’는 자연 속에 묻혀 고양된 화자의 마음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므로 시적 화자의 초연한 태도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 초연하다(超然하다): 어떤 현실 속에서 벗어나 그 현실에 아랑곳하지 않고 의젓하다. / 보통 수준보다 훨씬 뛰어나다.

- ③ ‘산과 계곡은 언제 봐도 그대로건만 / ㉡ 누대는 하나같이 비어 있구나’에서 자연(산과 계곡)은 그대로인데, 인간이 만든 누대는 비어 있다고 읊조리고 있다. 이를 통해 비어 있는 ㉡ ‘누대’는 영원한 자연에 대비되어 쇠락한 인간사를 암시하는 소재임을 알 수 있다.
- ④ 꽃잎을 흔드는 것은 봄바람이다. 화자는 꽃잎을 하나라도 흔들지 말라고 명령하며 늙어갈수록 봄바람이 안타깝다고 한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화자에게 봄바람은 꽃잎을 흔드는 부정적 이미지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3. 밑줄 친 단어 중 사람의 몸을 지시하는 말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 ① 선생님께서서는 슬하에 세 명의 자녀를 두셨다고 한다.
- ② 그는 수완이 좋아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
- ③ 여러 팀이 우승을 위해 긴 시간 동안 각축을 벌였다.
- ④ 사업단의 발족으로 미뤄 뒀던 일들이 진행되기 시작했다.

정답: ③

해설: ‘각축(角逐: 뿔 갈, 쫓을 축)’은 ‘서로 이기려고 다투며 덤벼들’이라는 뜻으로, ‘뿔’은 사람의 몸을 지시하는 말로 보기 어렵다. 나머지 ①·②·④에는 모두 사람의 몸을 지시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

오답 풀이: ① 슬하(膝下: 무릎 슬, 아래 하): 무릎의 아래라는 뜻으로, 어버이나 조부모의 보살핌 아래. 주로 부모의 보호를 받는 테두리 안을 이른다.

- ② 수완(手腕: 손 수, 팔 완): 일을 꾸미거나 치러 나가는 재간 / 손목의 잘록하게 들어간 부분
- ④ 발족(發足: 필 발, 발 족): 어떤 조직체가 새로 만들어져서 일이 시작됨. 또는 그렇게 일을 시작함.

14.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 계월이 여자 옷을 벗고 갑옷과 투구를 갖춘 후 용봉황월(龍鳳黃鉞)과 수기를 잡아 행군해 별궁에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군사를 시켜 보국에게 명령을 전하니 보국이 전해져 온 명령을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그러나 보국은 예전의 위엄을 보았으므로 명령을 거역하지 못해 갑옷과 투구를 갖추고 군문에 대령했다.

이때 계월이 좌우를 돌아보며 말했다.

“보국이 어찌 이다지도 거만한가? 어서 예를 갖추어 보이라.”

호령이 추상과 같으니 군졸의 대답 소리로 장안이 울릴 정도였다. 보국이 그 위엄을 보고 겁을 내어 갑옷과 투구를 끌고 몸을 굽히고 들어가니 얼굴에서 땀이 줄줄 흘러내렸다.

- 작자미상, <홍계월전>에서 -

(나) 장끼 고집 끝끝내 굽히지 아니하여 ㉡ 까투리 홀로 경황없이 물러서니, 장끼란 놈 거동 보소, 콩 먹으러 들어갈 제 열두 장목 펼쳐 들고 꾸벅꾸벅 고개 조아 조춤조춤 들어가서 반달 같은 혀뿌리로 들입다 콧 찍으니, 두 고패 둥그레지며 ...(중략)... 까투리 하는 말이

“저런 광경 당할 줄 몰랐던가. 남자라고 여자의 말 들어도 패가하고, 계집의 말 안 들어도 망신하네.”

까투리 거동 불작시면, 상하평전 자갈밭에 자락머리 풀어놓고 당굴당굴 땡굴면서 가슴치고 일어앉아 잔디풀을 쥐어뜯어 애통하며 두 발로 땅땅 구르면서 붕성지통(崩城之痛) 극진하니, 아홉 아들 열두 딸과 친구 벗님네들도 불쌍타 의논하며 조문 애곡하니 가련 공산 낙망천에 울음소리뿐이로다.

- 작자 미상, <장끼전>에서 -

- ① ㉠과 ㉡은 모두 상대에 비해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 ② ㉠이 상대의 행동을 비판하는 반면, ㉡은 옹호하고 있다.
- ③ ㉠이 갈등 상황을 타개하는 데 적극적인 반면, ㉡은 소극적이다.
- ④ ㉠이 주변으로부터 호의적인 반응을 얻은 반면, ㉡은 적대적인 반응을 얻는다.

정답: ③

해설: (가) 작가 미상의 <홍계월전(洪桂月傳)>은 중국 명나라를 배경으로 하여 여장군 홍계월의 영웅적 기상과 재주를 그린 고전 소설이다. (나) 작가 미상의 <장끼전>은 장끼와 까투리를 의인화하여 양반 사회의 위선을 폭로하고 여론 신장을 도모하는 등 시대 의식을 표출한 교훈적·풍자적인 성격의 고전 소설이다.

(가)에서 보국은 ㉠ ‘계월’의 명령을 거역하지 못하고 마지못해, 갑옷과 투구를 갖춘 채로 군문에 대령한다. 그런 보국에게 계월이 예를 갖추라고 호령하자 그제서야 보국은 겁을 내어 갑옷과 투구를 끌고 몸을 굽히며 들어가며 예를 갖춘다. 즉 ㉠은 갈등 상황을 명령을 통해 적극적으로 타개하고 있다. 그러나 (나)에서 ㉡ ‘까투리’는 장끼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장끼가 콩을 먹지 못하도록 하지 못하고) ‘홀로 경황없이 물러’선다. 결국 장끼가 콩을 먹고 변을 당한 뒤, 까투리는 애통해하고 있다. 따라서 ㉡은 갈등 상황을 타개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이 상대인 보국에게 명령을 하는 것으로 보아, ㉠이 상대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상대인 장끼가 고집을 굽히지 않자 ㉡이 ‘홀로 경황없이 물러서’는 것으로 보아, ㉡은 상대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은 ‘어찌 이다지도 거만한가?’라고 호령하며 보국의 행동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 역시 “저런 광경 당할 줄 몰랐던가. ~ 계집의 말 안 들어도 망신하네”라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콩을 먹은 장끼를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이 상대의 행동을 옹호하고 있다는 설명은 잘못되었다.

* 제시문에 없는 앞 부분에는, 콩을 먹으려는 장끼와 그것을 말리려는 까투리의 대화가 나타난다. 장끼는 아내의 말을 무시하고 아전인수 식으로 해석하는 반면, 까투리는 타당한 이유를 들어 논리적으로 장끼를 설득하려 한다. 이를 통해 장끼가 경망스럽고 권위적인 반면 까투리는 신중하고 지혜로운 성격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까투리의 “저런 광경 당할 줄 몰랐던가 ~ 계집의 말 안 들어도 망신하네”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장끼가 변을 당한 일에 대한 애통한 마음을 담은 것임을 알 수 있다.

④ ㉠의 호령에 ‘군졸의 대답 소리로 장안이 울릴 정도’라고 묘사하는 것으로 보아 ㉠은 주변으로부터 호의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장끼의 죽음에 애통해하자 자식들과 친구 벗님네들도 ‘불쌍타 의논하며 조문 애곡하니 가련 공산 낙망천에 울음소리뿐’이었다. 즉 ㉡ 역시 주변으로부터 호의적인 반응을 얻은 것이다.

15. 밑줄 친 말의 쓰임이 올바른 것은?

- ① 습관처럼 중요한 말을 되뇌이는 버릇이 있다.
- ② 나는 친구 집을 찾아 골목을 헤매이고 다녔다.
- ③ 너무 급하게 밥을 먹으면 목이 메이기 마련이다.
- ④ 그는 어린 시절 기계에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정답: ④

해설 끼이는(○): ‘끼다’의 피동사로, ‘벌어진 사이에 들어가 죄이고 빠지지 않게 되다’를 뜻하는 ‘끼이다’는 ‘끼이어 - 끼이니’ 등으로 활용하므로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를’과 같이 쓰는 것은 올바르다.

오답 풀이: ① 되뇌이는(×) → 되뇌는(○): ‘같은 말을 되풀이하여 말하다’를 뜻하는 말은 ‘되뇌다’이다. ‘되뇌이다’는 비표준어이다.

② 헤매이(×) → 헤매고(○): ‘갈 바를 몰라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갈피를 잡지 못하다/어떤 환경에서 헤어날 수 없고 허덕이다.’를 뜻하는 말은 ‘헤매다’이다. ‘헤매이다’는 비표준어이다.

③ 메이기(×) → 메기(○): ‘뚫려 있거나 비어 있는 곳이 막히거나 채워지다’ 등을 뜻하는 말은 ‘메다’이므로 ‘목이 메기 마련이다’와 같이 쓸 수 있다.

참고로, ‘메이다’가 ‘뚫려 있거나 비어 있는 곳이 막히거나 채워지다’ 등의 의미로 쓰일 경우에는 비표준어이지만, ‘메이다’가 ‘메다’의 피동사로 ‘어깨에 걸쳐지거나 올려놓이다’의 의미로 쓰일 경우에는 올바르다. 예) 어깨에 메인 핸드백이 걸을 때마다 움직인다.

16. 밑줄 친 부분의 한자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우리 시대 영웅으로 소방관(消防官)이 있다.
- ② 과학자(科學者)는 청소년들이 선망하는 직업이다.
- ③ 그는 인공지능 연구소의 연구원(研究員)이 되었다.
- ④ 그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변호사(辯護事)로 선임되었다.

정답: ④

해설 ‘변호사’는 ‘辯護士(말 잘할 변, 보호할 호, 선비 사)’이다. 이때 ‘士’는 ‘직업’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다.

* 事: 일 사

오답 풀이: ① 消防官(꺼질 소, 막을 방, 벼슬 관): ‘官’은 ‘공적인 직책을 맡은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다.

② 科學者(품등 과, 배울 학, 놈 자): ‘者’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다.

③ 研究員(갈 연, 궁구할 군, 관원 원): ‘員’은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다.

* 師/士/事

직업을 나타내는 단어 뒤에는 일반적으로 ‘사’가 붙는다. 그러나 이때 한자는 ‘師/士/事’로 구별된다. 이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없지만, ‘事(일 사)’는 다스린다, 일을 맡는다는 뜻으로 쓰이고, ‘士(선비 사)’는 주로 전문적이거나 기능적인 직업의 의미로 쓰이며, ‘師(스승 사)’의 경우는 교육적·종교적 가르침을 전하는 직업에 주로 쓰인다.

師 스승 사

예) 의사(醫師), 약사(藥師), 간호사(看護師), 목사(牧師), 교사(教師)

士 선비 사

예) 변호사(辯護士), 변리사(辨理士), 회계사(會計士), 공인중개사(公認仲介士)

事 일 사

예) 판사(判事), 검사(檢事), 도지사(道知事)

17.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르네상스가 일어나게 된 요인으로 많은 것들이 거론되어 왔지만, 의학사의 관점에서 볼 때 흥미롭고 논쟁적인 원인은 페스트이다. 페스트가 유럽의 인구를 격감시킴으로써 사회 경제 구조가 급변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재래의 전통이 지니고 있던 강력한 권위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예컨대 사람들은 이 무시무시한 질병을 예측하지 못한 기존의 의학적 전통을 불신하게 되었으며, 페스트로 인해 ‘사악한 자’들만이 아니라 ‘선량한 자’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죽는 것을 보고 이전까지 의심하지 않았던 신과 교회의 막강한 권위에 대해서도 회의하게 되었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죽음에 대한 경험은 사람들을 여러 방향에서 변화시켰다. 사람들은 거리에 시체가 널려 있는 광경에 익숙해졌고, 인간의 유해에 대한 두려움 또한 점차 열어졌다. 교회에서 제시한 세계관 및 사후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삶과 죽음 같은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새롭게 사유하기 시작했다. 중세의 지적 전통에 대한 의구심은 고대의 학문과 예술, 언어에 대한 재평가로 이어졌으며, 이에 따라 신에 대한 무조건적 찬양과 복종 대신 인간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사유가 활발해졌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술사에서 두드러지게 포착된다. 인간에 대한 관심의 증대에 따라 인체의 아름다움이 재발견되었고, 인체를 묘사하는 다양한 화법도 등장했다. 인체에 대한 관심은 보이는 부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기존의 의학적 전통을 여전히 신봉하던 의사들에게 해부학적 지식은 불필요한 것으로 인식되었던 반면, 당시의 미술가들은 예술가이면서 동시에 해부학자이기도 할 만큼 인체의 내부 구조를 탐색하는 데 골몰했다.

- ① 전염병의 창궐은 르네상스의 발생을 설명하는 다양한 요인 가운데 하나이다.
- ② 페스트로 인한 선인과 악인의 무차별적 죽음은 교회가 유지하던 막강한 권위를 약화시켰다.
- ③ 예술가들이 인체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함으로써 고대의 학문과 언어에 대한 재평가도 이루어졌다.
- ④ 르네상스 시기에 해부학은 의사들보다도 미술가들의 관심을 끌었다.

정답: ③

해설: 제시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이다.

2~마지막 문단은, ‘중세의 지적 전통에 대한 의구심 → 고대의 학문과 예술, 언어에 대한 재평가 → 인간에 대한 관심이 증대함 → 인체의 아름다움이 재발견됨’으로 내용이 전개된다.

즉 고대의 학문과 예술, 언어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인체의 아름다움이 재발견된 것이다. 따라서 이를 선후 관계를 바꾸어 얘기한 ③이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1문단 첫 문장에서 알 수 있다.

- ② 1문단의, 페스트로 인해 사악한 자뿐만 아니라 선량한 자도 무차별적으로 죽는 것을 보고 신과 교회의 막강한 권위에 대해서도 회의하게 되었다는 내용에서 알 수 있다.
- ④ 마지막 문단에서 알 수 있다. 즉 의사들은 해부학적 지식을 불필요한 것으로 인식한 반면, 르네상스 시기의 미술가들은 예술가이면서 동시에 해부학자이기도 할 만큼 인체의 내부 구조를 탐색하는 데 골몰했다.

18. 밑줄 친 부분에 어울리는 한자 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는 글씨를 쓰다 남은 먹을 버리기 아까워 그린 듯이 갈필(渴筆)의 거친 선 몇 개로 이루어져 있다. 정말 큰 기교는 겉으로 보기에는 언제나 서툴러 보이는 법이다. 그러나 대가의 덩덤한 듯, 툭 던지는 한마디는 예리한 비수가 되어 독자의 의식을 헤집는다.

- ① 巧言令色 ② 寸鐵殺人 ③ 言行一致 ④ 街談巷說

정답: ②

해설: ‘툭 던지는 한마디는 예리한 비수가 되어 독자의 의식을 헤집는다’라고 했으므로 이와 어울리는 한자 성어로는 ‘한 치의 쇠붙이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뜻으로, 간단한 말로도 남을 감동하게 하거나 남의 약점을 찌를 수 있음을 이르는 말’인 ‘寸鐵殺人(마디 촌, 쇠 철, 죽일 살, 사람 인)’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巧言令色[교묘할 교, 말씀 언, 명령할 영(령), 빛 색]: 아첨하는 말과 알랑거리는 태도

- ③ 言行一致(말씀 언, 다닐 행, 하나 일, 이를 치): 말과 행동이 하나로 들어맞음. 또는 말한 대로 실행함.
- ④ 街談巷說(거리 간, 말씀 담, 거리 할, 말씀 설):거리나 향간에 떠도는 소문

19.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논리실증주의자들에 따르면, 만약 어떤 것이 과학일 경우 거기에서 사용되는 문장은 유의미하다. 그들은 유의미한 문장의 기준으로 소위 ‘검증 원리’라는 것을 제안했다. 검증 원리란, 경험을 통해 참이나 거짓을 검증할 수 있는 문장은 유의미하고 그렇지 않은 문장은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이다. 다음 두 문장을 예로 생각해 보자.

(가) 달의 다른 쪽 표면에 산이 있다.
(나) 절대자는 진화와 진보에 관계하지만, 그 자체는 진화하거나 진보하지 않는다.

위 두 문장 중 경험을 통해 검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비록 현실적으로 큰 비용이 들기는 하지만 (가)는 분명히 경험을 통해 진위를 밝힐 수 있다. 즉 우리는 (가)의 진위를 확정하기 위해서 무엇을 경험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 근거하여 논리실증주의자들은 (가)는 검증할 수 있고, 유의미한 문장이라고 판단한다. 그럼 (나)는 어떠한가? 우리는 무엇을 경험해야 (나)의 진위를 확정할 수 있는가? 논리실증주의자들은 그런 것은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나)는 검증할 수 없고 과학에서 사용될 수 없는 무의미한 문장이라고 말한다.

- ① 논리실증주의자들에 따르면 무의미한 문장을 사용하는 것은 과학이 아니다.
- ② 논리실증주의자들에 따르면 과학의 문장들만이 유의미하다.
- ③ 검증 원리에 따르면 아직까지 경험되지 않은 것을 언급한 문장은 무의미하다.
- ④ 검증 원리에 따르면 거짓인 문장은 무의미하다.

정답: ①

해설: ‘논리실증주의자들에 따르면, 만약 어떤 것이 과학일 경우 거기에서 사용되는 문장은 유의미하다’는 가언 삼단 논법(만일 p이면 q이다)이 적용된 것이다. 즉 만약 어떤 것이 과학일 경우(p이면) → 그것에 사용되는 문장은 유의미하다(q이다)의 논리 구조를 보이는 것이다.

①은 후건을 부정하여 전건의 부정을 도출해 낸 것이므로 적절한 추론이다. 즉 만약 어떤 것에서 사용된 문장이 무의미하다면(q의 부정) → 그것은 과학이 아닌 것이다(p의 부정).

오답 풀이: ② ‘과학의 문장’은 ‘유의미한 문장’에 포함된다. 즉 과학의 문장 이외에도 유의미한 문장은 존재할 수 있으므로 ②는 잘못된 추론이다.

③·④ 검증 원리란 ‘경험을 통해 참이나 거짓을 검증할 수 있는 문장은 유의미하고 그렇지 않은 문장은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이다. 즉 ‘아직까지 경험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경험을 통해 참, 거짓을 검증할 수 있다면 유의미하다. 또한 경험을 통해 거짓을 검증할 수 있는 문장이라면 유의미하다.

*** 가언 삼단 논법**
대전제가 조건을 제시하는 명제로 이루어진 삼단 논법이다. 조건 제시 부분이 전건(前件), 그 결과 부분이 후건(後件)에 해당한다.

- 만일 p이면 q이다. → p이다. → q이다. (전건 긍정으로 후건 긍정)
- 만일 p이면 q이다. → q가 아니다. → p가 아니다. (후건 부정으로 전건 부정)

예) •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 → 비가 온다. (전건 긍정) → 그러므로 땅이 젖을 것이다. (후건 긍정)
•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 → 땅이 젖지 않았다. (후건 부정) → 그러므로 비가 오지 않았다. (전건 부정)

20.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컴퓨터에는 자유 의지가 있을까? 나아가 컴퓨터에 도덕적 의무를 귀속시킬 수 있을까? 컴퓨터는 다양한 전기 회로로 구성되어 있고, 물리 법칙, 프로그래밍 방식, 하드웨어의 속성 등에 따라 필연적으로 특정한 초기 상태에서부터 다음 상태로 넘어간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상태에서 세 번째 상태로 이동하고, 이러한 과정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즉 컴퓨터는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그럼 이러한 시스템에는 자유 의지가 있을까?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 시스템의 중요한 특징은 주어진 조건에 따라 결과가 하나로 고정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이러한 시스템에는 항상 하나의 선택지만 있을 뿐이다. 그런 뜻에서 결정론적 지배를 받는다는 것과 자유 의지를 가진다는 것은 양립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어떤 선택을 할 때 그것과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은 자유 의지의 필요조건이기 때문이다. 결국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 시스템은 자유 의지를 가지지 않는다. 또한 자유 의지를 가지지 않는 시스템에 도덕적 의무를 귀속시킬 수 없음은 당연하다.

<보기>

- ㉠ 컴퓨터는 자유 의지를 가지지 않으며 도덕적 의무의 귀속 대상일 수도 없다.
- ㉡ 도덕적 의무를 귀속시킬 수 있는 시스템은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 ㉢ 어떤 선택을 할 때 그것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은 자유 의지를 가지지 않는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정답: ④

해설: ㉠·㉢ 2문단의 내용에서 아래 두 개의 명제를 도출해 낼 수 있다.

명제 1.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 시스템은 자유 의지를 가지지 않는다.

명제 2. 자유 의지를 가지지 않는 시스템은 도덕적 의무에 귀속되지 않는다.

그런데, 컴퓨터는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따라서 컴퓨터는 자유 의지를 가지지 않으며 도덕적 의무의 귀속 대상일 수도 없다(㉠). 또한 도덕적 의무를 귀속시킬 수 있는 시스템은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 2문단에 따르면, ‘어떤 선택을 할 때 그것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은 항상 하나의 선택지만 존재하는 ‘결정론적 시스템’이다(환치). ‘명제 1’에 따라, 결정론적 시스템은 자유 의지를 가지지 않는다.